

## 베트남 개혁·개방의 성공 요인과 시사점

김 천 구 /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현재 북한은 화폐개혁, 농업개혁 등 일련의 개혁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 중 시장경제 이행으로 경제 성장력과 안정성을 확보한 베트남의 개혁·개방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북한의 개혁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베트남은 도이모이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한편 친서방 정책 전환, 수출 전략 산업 및 경공업 육성, 적극적 외자 유치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도이모이 정책 이후 베트남은 경제 성장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였으며, 경제성장률, 외국인 직접투자, 교역 규모 등에서 북한을 크게 능가하였다. 북한에 경제력이 뒤쳐져 있던 베트남은 개혁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성장이 지속적으로 정체되어 경제력이 점차 베트남에 뒤처지게 되었다.

베트남 개혁의 대내적 성공 요인은 먼저 시장 경제 도입을 꾀할 수 있다. 가격에 의해 결정되던 가격 체계에서 1989년부터 환율 및 금리 결정에 시장 경제 요소를 고려하고,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관리하의 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적극 추진하였다. 정치적으로는 당 주도하에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치적 안정 하에 사회주의적 경제부문을 점진적으로 시장경제화할 수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통한 외국 자본과 기술, 해외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국내 자원의 적극적 개발을 추구하는 대외지향적인 경제성장정책을 채택하여 제도적 투자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제재조치로 개혁 개방 초기 어려움을 겪었으나 1989년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를 계기로 서방선진국의 對베트남 진출이 본격화되고 점차적으로 세계 시장경제질서에 편입되었다.

개혁·개방을 통해 거시경제의 성장과 안정성을 확보한 베트남의 사례는 북한과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먼저 북한은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경제로 안정적인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개혁의 기본 방향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과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금융산업 발전 전략의 수립 및 금융 글로벌화를 지원해야 한다.

## 개요

최근 북한은 화폐개혁, 농업개혁 등 일련의 개혁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북한은 시장경제에 대한 통제 강화,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 재정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화폐개혁을 2009년 전격적으로 시행하였고, 2012년과 2014년에는 북한은 농업부문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농업개혁을 시행하였다. 다만 아직까지 북한은 경제성장률이 1%대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등 경제 성장 속도가 부진하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의 이행으로 경제 성장력과 안정성을 확보한 국가는 베트남이 있다. 베트남은 개혁·개방정책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 및 재정구조 개선에 따른 물가 안정, 농업생산의 증가 및 점진적 산업 구조 변화,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 본고에서는 베트남의 개혁·개방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북한의 개혁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 최근 북한의 개혁 정책

북한은 2009년 11월 30일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복원과 후계체제 안정화를 위해 화폐 개혁을 전격 단행하였다. 북한이 화폐 개혁을 실시한 배경은 경제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재정 악화로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체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안정적인 권력승계와 경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시장 통제와 체제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던 시점이었다. 화폐 개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시중의 과잉 화폐 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둘째 재정역량 강화를 위함이었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온 국가 재정 능력회복과 2012년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경제 개발 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시중 유동성을 국가로 환수하려는 시도였다. 셋째 국가주도의 경제운영체제 강화를 위함이었다. 시장 활동과 부정부패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정치 경제 세력을 단속하여 국가주도의 공공경제 정상화를 추구하려는 의도였다. 화폐 개혁 이후 재정수입 확충과 국가주도의 경제 운영 강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인플레이션의 지속, 외화선호도 심화 등 거시 경제 불안정성 확대는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화폐개혁 이외에도 경제 회생 속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농업개혁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농업개혁은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 최근 농업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생산체제는 기존 4~6명의 분조단위 관리제에서 가족단위 자율경영제로 바뀌고, 생산 분배도 기존에 생산량의 70%를 국가가 가져가고 30%를 분조가 처분하던 방식에서 향후에는 국가가 40%만 가져가고 개인이 60%를 가져가게 된다. 더욱이, 토지도 가족 1명 당 땅 1,000평을 지급할 예정이다.

### 〈 화폐개혁 내용 〉

### 〈 농업부문 ‘경제관리개선조치’ 〉

시행	2009년 11월 30일 (교환은 12월 6일까지 진행)	구분	개혁내용
교환 비율	구권과 신권 100:1 (은행 저금 10:1 교환)	2002년 7.1조치	- 국가수매량 축소 - 농장의 경영자율성 확대 - 분조관리제 실시 - 분조규모, 10~25명
교환 한도	가구당 10만원	2012년 6.28조치	- 분조관리제 전면확대 (분조규모 축소) - 초과생산물 자율처분권 확대 - 생산량의 70%(국가), 30%(분조)
가격 조정	2002년 7월 경제관리 개선 조치 때 수준 환원	2014년 5.30조치	- 2015년부터 가족단위 자율경영제 도입
외화 사용	전면 금지해 외국인도 북한 화폐로 바뀌 사용		

## 베트남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

베트남이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본격적으로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되기 시작한 것은 도이모이 개혁 이후이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한편 친서방 정책 전환, 수출 전략 산업 및 경공업 육성, 적극적 외자 유치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도이모이란 1986년 12월 제6차 베트남 공산당대회에서 채택한 슬로건의 하나로 경제 우선의 개방·개혁정책을 의미한다. 도이모이는 ‘쇄신’을 뜻하는 베트남어로 사회주의의 기초골격은 유지하면서 자본주의를 접목시키려는 정책으로 베트남판 페레스트로이카로 불린다. 도이모이 정책의 기본 방향은 첫째, 과거 사회주의 중공업 중심 생산 방식에서

민생 경제 안정 정책으로 방향 전환, 둘째, 적극적 대외 개방 정책을 통한 경제 성장 기반 마련, 셋째, 금융 시장 안정화를 통한 실물 지원이다.

도이모이 개혁 시기에 베트남은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한편 수출 전략 산업 및 경공업 육성, 적극적 외자 유치 및 투자 환경 개선 노력하였다. 베트남은 기존 사회주의 중공업 우선육성정책을 탈피하여 소비재 생산 확대 및 수출품 개발과 품질 향상 실현에 적합한 경제·산업구조로 재조정을 추진하였다. 1988년에 이원적 은행제도를 도입하였다. 1990년대에는 비효율적인 국유 기업을 정리하여 세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영업이윤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등 각종 세제를 도입하였다. 베트남은 제1단계 개혁(1981~85년)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 부여, 제2단계 개혁(1986~90년)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를 폐지, 제3단계 개혁(1990~93년)에서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줄이거나 철폐했다.

특히 베트남은 국제공적자금 조달 확대를 위해 친서방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베트남은 1978년 12월 캄보디아를 무력으로 점령함에 따라 동구권을 제외한 국제공적자금 지원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1989년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로 서방국가들의 양자 간 공적개발 원조가 재개되었다. 1993년 미국 경제제재조치 해제 및 지원 이후 베트남에 대한 공적개발원조가 증가하고 1995년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등의 성과를 보이면서 FDI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 베트남 도이모이 개혁의 주요 정책 및 성과 〉

시기구분	경제개발계획	주요 정책	성과 및 문제점	비고
다부문 경제 체제 수립기 (도이모이 1단계, 1986~91년)	제4차 5개년 계획 (1986~91)	- 식량, 소비재, 수출산업 육성 - 대외개방정책 - 농업 개혁 -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 가족단위 농업 장려	- 식량증산, 쌀 수출 - 다부문 경제체제 수립 - 실업 증가 - 동구권, 소련의 원조 중단	수출 전략 산업 및 경공업 육성
개방 체제 수립기 (도이모이 2단계, 1992년 이후)	제5차 5개년 계획 (1991~95)	- 국영기업의 민영화 조치 - 강력한 통화 관리 - 공업화, 기간산업 육성 - 외자법 및 토지법 개정 - 외환시장 개설 - 국영기업법 제정	- 외국인 투자 활기 - 안정적인 성장국면 진입 - 국제금융기관 융자 재개	적극적 외자 유치 및 투자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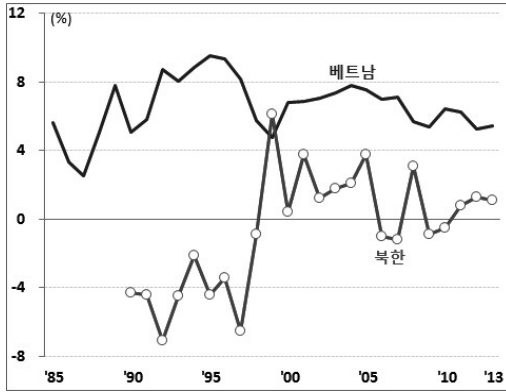
## 도이모이 개혁 이후 북한, 베트남 경제 비교

도이모이 정책 이후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 및 재정구조 개선에 따른 물가 안정, 농업생산의 증가 및 점진적 산업 구조 변화,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 1988년 중앙은행인 베트남 국가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하여 이원적 은행제도가 도입되었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신용 정책 운용에 집중한 결과 1990년대 들어서 물가상승률이 5%대로 돌아섰다. 1970년대 후반 연평균 0.2%에 머물던 경제성장률은 1986년 도이모이 정책 추진을 계기로 점차 상승하여 2000년 이후 6~8% 대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1987년 12월 외국인투자법 제정 이후 매년 3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여 수출과 함께 1990년대 고도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베트남이 도이모이 개혁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한 것과 달리 북한은 아직까지 성장이 정체되어 있으며 거시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하다. 분야별로 베트남의 도이모이 개혁 전후 성과를 북한과 비교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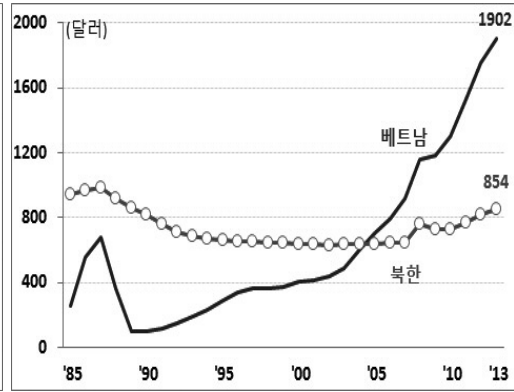
먼저 경제력은 도이모이 개혁 이전 베트남은 북한보다 낮은 경제력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베트남은 개혁 이후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높아져 현재 북한 경제를 크게 능가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의 시기를 겪으며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다소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연평균 1%대의 낮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1986년 도이모이 개혁 이후 7%대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1980~90년대 베트남은 1인당 GDP가 북한보다 낮았으나, 최근 베트남의 급격한 성장으로 소득 수준이 북한을 크게 추월하였다. 북한의 1인당 GDP는 1980년대 후반 900 달러를 넘었으나 1990년대 급격한 경기 침체로 1인당 GDP가 600 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 최근 북한의 1인당 GDP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까지 1980년대 후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의 1인당 GDP는 1980~90년대 북한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후진국에 머물렀으나 최근 1인당 GDP가 급격히 증가하며 2013년 기준 1,902 달러를 기록하였다.

〈 북한, 베트남 경제성장률 〉



자료 : IMF, 한국은행

〈 북한, 베트남 1인당 GDP 〉



자료 : IMF, 북한은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북한의 교역 규모는 아직까지 정체되어 있으나 베트남의 교역 규모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동시에 무역수지 적자 구조가 해소되었다. 과거 북한의 수출은 1990년 기준 17.3억 달러, 수입은 24.4억 달러로 베트남(수출 24.0억 달러, 수입 27.5억 달러)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현재 2013년 베트남의 수출은 1,321.3억 달러 수입은 1,321.3억 달러로 1990년 대비 각각 55.1배, 48.0배 증가한 반면 북한은 동기간 수출 1.9배, 수입 1.7배 증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과거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던 베트남은 최근 거의 무역수지 균형에 도달한 반면 북한은 여전히 무역수지 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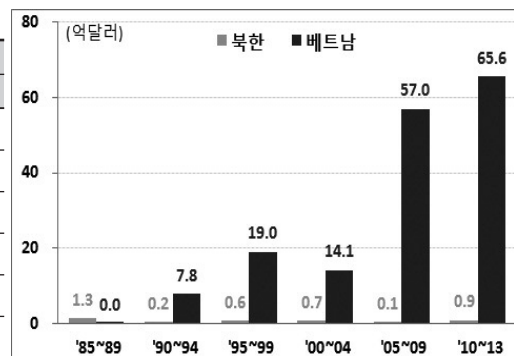
〈 북한, 베트남 수출, 수입 〉

(단위 : 억 달러)

년도	북한		베트남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990	17.3	24.4	24.0	27.5
1995	7.4	13.2	54.5	81.6
2000	5.6	14.1	144.5	156.4
2005	10.0	20.0	324.4	369.8
2010	15.1	26.6	722.4	848.4
2013	32.2	41.3	1,321.3	1,321.3

자료 : 무역협회, 베트남 관세청

〈 북한,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



자료 : UNCTAD  
주 : 기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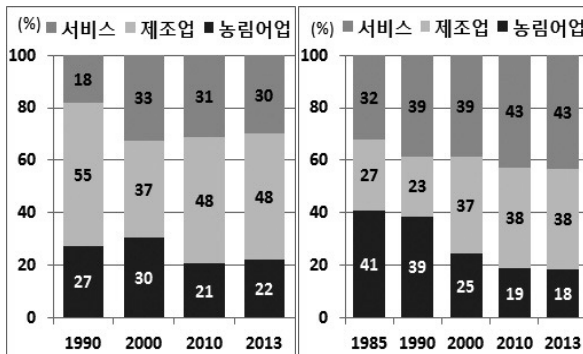


북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베트남은 경제적 매력에 부각되며 외국인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북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985~89년 연평균 1.3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등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1980년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199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베트남은 2010~13년 연평균 약 65.6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입되고 있다.

농업 국가였던 베트남의 산업구조는 개혁·개방으로 빠르게 제조업이 성장한 반면 북한은 제조업 분야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북한은 현재까지 제조업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다. 북한은 2013년 기준 산업구조가 농림어업 22%, 제조업 48%, 서비스업 30%이다. 반면 대표적인 농업 국가였던 베트남의 산업구조는 개혁·개방 이후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물가가 서서히 안정된 베트남과 달리 북한은 화폐개혁 이후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안정성이 훼손되었다. 2000년대 초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던 북한은 2000년대 중반에도 물가 불안이 지속되었다. 특히 북한은 화폐개혁 이후인 2010년에 전년 대비 3,122.7% 상승하였고 2011년, 2012년에도 각각 202.4%, 68.0% 오르는 등 물가 불안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베트남은 물가 상승률이 개혁 초기인 1980년대 중후반 불안정한 모습을 모였지만 이후 차츰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 북한, 베트남 산업구조 〉



자료 : 베트남 통계청, 한국은행

〈 북한, 베트남 물가 상승률 〉

연도	북한	베트남
1985~1989	-	275.1%
1990~1994	-	34.7%
1995~1999	-	7.6%
2000~2004	101.0%	2.6%
2005~2009	30.1%	10.8%
2010~2013	828.1%	11.5%

자료 : IMF, 북한은 현대경제연구원 자체추정  
주 : 기간 평균

## 베트남 개혁의 성공 요인

베트남 개혁의 성공 요인은 첫째, 베트남은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당 주도하에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시장경제화가 가능했다. 국가에 의해 결정되던 가격 체계에서 1989년부터 환율 및 금리 결정에 시장 경제 요소를 고려하고,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관리하의 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철강, 시멘트, 전력, 수도, 교통, 통신 등 주요 원자재와 공공 요금을 제외한 일반가격의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둘째, 당 주도하에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치적 안정하에 사회주의적 경제부문을 점진적으로 시장경제화 할 수 있었다. 개혁파와 보수파의 대립이 상존하였으나, 베트남 공산당은 민족주의와 실용주의에 입각한 호치민 사상에 근거하여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한 경제자유화에 주력하였다.

셋째, 베트남은 외국 자본과 기술, 해외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대외지향적인 성장정책을 채택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대미관계 개선 노력으로 각광받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넷째, 개방을 통한 외국 자본과 기술, 해외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국내 자원의 적극적 개발을 추구하는 대외지향적인 경제성장정책을 채택하여 제도적 투자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1987년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하고 4차례 개정을 통해 대외 경제관계에 있어서 사기업 및 외국기업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율권을 부여하며 외국인 투자 자본에 대한 안정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섯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제재조치로 개혁 개방 초기 어려움을 겪었으나 1989년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수를 계기로 서방선진국의 對베트남 진출이 본격화되고 점차적으로 세계 시장경제질서에 편입되었다. 대미관계 개선노력으로 1995년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2002년 미 의회의 정상무역관계(NTR) 승인, 2006년 11월 WTO 가입 승인으로 각광받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다.

## 시사점

베트남의 사례가 북한에 주는 함의를 찾기 위해 개혁 이후 베트남의 거시경제 변화와 성공요인을 살펴보았다. 개혁·개방을 통해 거시경제의 성장과 안정성을



확보한 베트남의 사례는 북한과 우리에게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먼저 북한은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경제로 안정적인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개혁 개방 지원과 외자유치 유도 등으로 북한의 변화 분위기를 이끌고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과 제도화를 지원해야 한다. 물질적 인센티브와 기업소의 분권화·자율 경영 확대, 국정 가격과 종합시장 가격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가격 개혁 등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경제 개발구법 제정 및 전국 단위의 경제개발구 확대 등 최근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과 변화 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

개혁의 기본 방향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농업 개혁과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농업 부문 개혁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수입 및 국제 원조를 통한 식량난 해결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완전 자급을 추구해야 한다. 남한에서는 비료·식량 등의 일회성 지원뿐만 아니라 치수관리 지원, 농업 기자재 공급 등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집약적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하여, 생필품의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여 산업화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북한 내의 기존 경공업 기반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한편, 개성공단 인접 지역에 북한 전용의 경공업 공단 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의 인접 지역은 개성 공단의 기초 인프라 활용이 쉽고, 남한의 기술·경영지도 및 원자재 조달·수송이 용이한 이점이 있다. 경공업 분야에서는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추구하고, 부족한 생필품 공급을 목표로 물가 안정과 경제 회생의 자신감 고취의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

끝으로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 추진 및 북한의 국제금융·무역체제의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 북한은 정치적 체제 안정 하에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대미 관계 개선을 통해 IMF, WTO 등의 국제금융·무역체제에 가입하여 세계 시장질서에 편입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금융산업 발전 전략의 수립 및 금융 글로벌화를 지원해야 한다. 북한 경제의 산업 발전 및 수출 육성에 필요한 금융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안전 보장 장치 마련과 외자유치법 개정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금융·외환 선진화와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 統